

21세기 국민 환경의식조사

자료제공 환경부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1. 조사의 배경

○ 쓰레기나 오·폐수에 의한 오염 등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환경문제는 90년대 이후 일상생활 및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절실한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었음.

○ 더구나 환경문제에 관한 해결 및 대처능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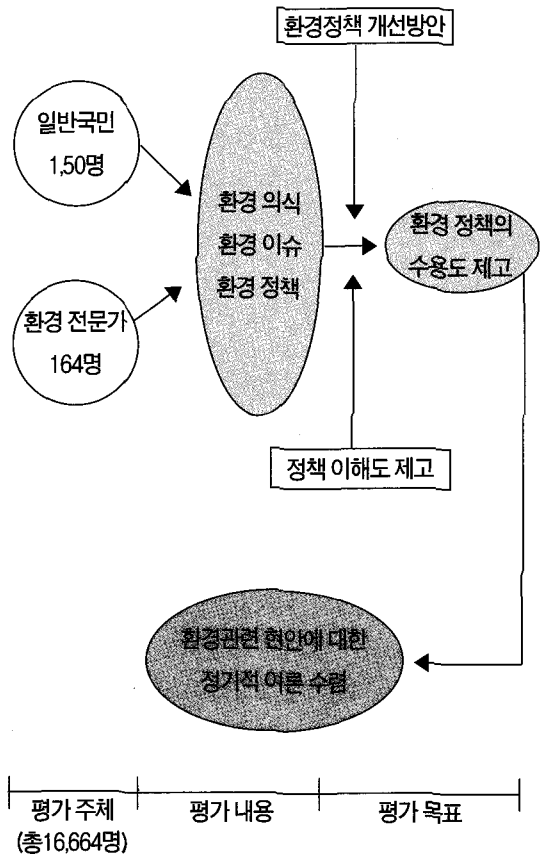
1-2.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일반국민(1,500명)과 환경관련 전문가(164명)를 대상으로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기초(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수행됨.

1-3. 조사의 활용

-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 참고자료
- 환경정책의 이해도 및 정책 수용도 제고 방안 마련
-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초 교육 자료

2. 전체 조사의 구성



3. 주요 조사 내용

주요 평가 항목	일반 국민	환경 전문가
	문항수	문항수
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11	7
② 환경보전운동의 실천	6	0
③ 환경오염 실태	2	1
④ 환경정책 일반	5	2
⑤ 환경정책의 여러 분야	22	5
⑥ 환경 관련 재원 확충 문제	5	0
⑦ 환경주체들의 환경 개선 노력	8	0
⑧ 지구환경 문제	2	1
⑨ 환경과 주권행사 및 향후 개선과제	4	1
총 계	66문항	17문항

4. 조사 개요

	21세기 국민환경의식 동향조사	
	일반국민 조사	환경 전문가 그룹 조사
①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환경단체 상근자, 환경관련 공무원, 군인 제외	· 환경관련 전문가
② 조사지역	· 전국 (제주도 제외)	· 전국
③ 조사방법	· 개별 면접 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Internet on-line Survey)
④ 유효표본	· 총 1,500명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2.5%	· 총 164명
⑤ 표본추출	· 다단계층화추출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 List 전수 대상
⑥ 조사기간	· 2000년 2월 21일~3월 6일	· 2000년 2월 28일~3월 8일
⑦ 분석방법	· 빈도분석 및 추이분석	· 빈도분석 및 추이분석
⑧ 조사기관	· (주)월드리서치	· (주)월드리서치

5. 응답자 특성

5-1.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① 성 별	남성	494
	여성	506
② 연 령 별	20대	26.5
	30대	26.0
	40대	19.8
	50대이상	27.7
	서울	22.0
③ 지 역 별	부산/경남	17.0
	대구/경북	11.6
	인천/경기	23.6
	광주/전라	12.2
	대전/충청	10.1
	강원	3.5
④ 규 모 별	대도시	47.9
	중소도시	39.0
	군지역	13.1
⑤ 학 력 별	중졸이하	15.7
	고졸	47.7
	대재이상	36.6
	하이테크라	23.7
⑥ 직 업 별	블루칼라	25.2
	자영업	15.3
	주부	26.8
	학생	6.0
	기타무직	3.0
	3인이하	31.3
⑦ 가 족 수 별	4인	46.8
	5인이상	21.9
	150만미만	25.1
⑧ 월 병 균 가 구 소 득 별	150-249만원	49.9
	250만원이상	25.0
	미혼	23.3
⑨ 결 혼 여 부 별	기혼	76.7
	단독주택	39.6
⑩ 주 거 형 태 별	아파트	43.9
	다세대	12.3
	상가주택	4.2
	기독교	22.9
⑪ 종 교 별	불교	27.1
	천주교	8.3
	무교	40.4
	유교/기타	1.3
	소유	74.2
⑫ 자 동 차 소 유 별	비소유	25.8
	주택지역	77.5
⑬ 지 역 특 성 별	주상복합지역	11.5
	농촌지역	6.3
	농공/상공복합지역	4.7
	계	1,500명

5.2. 환경전문가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① 성 별	남성	151	92.1
	여성	13	7.9
② 연 령 별	20대	5	3.0
	30대	33	20.1
	40대	76	46.4
	50대이상	50	30.5
③ 학 력 별	대졸이상	164	100.0
④ 직 업 별	대학교수	49	29.9
	연구소 연구원	69	42.1
	환경단체 상근자	13	7.9
	방송/언론인	7	4.3
	기업체 임직원	21	12.8
	기타	5	3.0
계		164명	100.0%

종합평가의견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일반국민들의 10명 중 8명 이상(88.8%)은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주목됨.

□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환경오염은反사회적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은 증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될 것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나타남.

■ 환경보전을 위한 조세부담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요망됨.

2. 국가정책 중 환경분야의 우선 순위

□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으로 조사되었으나, 중복응답결과를 종합하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국민과 환경전문가의 모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 조직, 권한, 기능의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의 기능과 권한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3. 환경교육 개선방안

□ 현재 환경 정보 전달 매체로 TV와 신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인터넷과 PC 통신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터넷과 PC 통신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이 요망됨.

□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일반인과 환경전문가들 모두 ‘최신자료 부족’, ‘이용가능한 자료 부족’ 등을 지적하여 정보(contents)의 質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향후 환경교육은 현장체험교육 위주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됨.

4. 환경보전운동의 실천정도 제고방안

□ 환경보전 활동 중 ‘자연환경 훼손’이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항의 실천 정도는 매우 높으나, '저공해세제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은 실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생활실천 방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망됨.

▣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 사례 신고시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통보하고, 포상금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요망됨. 또한 환경오염이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이 요망됨.

5. 분야별 환경오염 실태 평가

□ 환경오염 관련 평가 분야의 심각성에 대한 과거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문제 전반'과 '생활쓰레기 처리',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 화학물질 처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환경오염분야 중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강화 방안이 요망됨.

6.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 중 우선 해결과제

□ 대도시의 공기오염 분야에서는 먼지와 자동차 매연문 제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서울(30.7%), 인천/경기(30.6%), 대전/충청(41.1%)에서는 '오존 등 광화학 스모그'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은 49.9%,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50.1%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소유자(1,113명) 역시, 찬성(50.1%)과 반대(49.9%)가 엇갈리고 있음. 그러나 경유 이용율이 높은 농촌지역(61.7%)과 경유차량 소유자(68.8%)는 적극적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나 주목됨.

7. 수돗물의 불신감 해소방안

□ 식수 음용 실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59.1%)이상은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5년 8월 조사와 96년 1월 조사, 97년 9월 조사,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비율이 1순위로 조사됨.

□ 식수적합성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29.9%)는 지난 96년 조사결과(16.3%) 보다는 약 14%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식수에 대한 평가가 다소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수돗물의 식수 부적합 원인은 구체적인 부적합 요인(냄새)과 아울러 '사회적 불안심리'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정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민간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요망됨.

8. 향후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 방안

□ 수돗물에 대한 對국민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환경전문가 들은 '상수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인들은 '수돗물 정수과정 및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수원 보호와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시각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조정을 위한 조정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물관리’가 환경문제의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환경부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일치되고 있음.

9. 재활용제품 구입율 제고 방안

□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재활용제품 구입 빈도를 살펴보면, ‘구입한다’ 59.2%, ‘구입하지 않는다’ 40.8%로 조사되어, 재활용 제품을 구입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활용제품의 활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필요한 물품 중 재활용품이 없어서’ (22.9%), ‘구입처를 몰라서’ (21.8%), ‘제품의 질이 낮아서’ (20.1%)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활용품 품목과 구입처 확대와 아울러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10.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개선방안

□ 일반국민의 47.9%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고 있는 의견은 52.1%로 나타남.

□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해 과반수 이상(81.6%)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고 있음.

■ 향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홍보와 함께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 등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11.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쟁점 평가

□ 국립공원 보전방안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지적한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각 국립공원 수용능력에 맞는 입장객 제한’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남.

□ ‘관광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자연 훼손이 심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나타남.

□ 생태계 보전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의 대다수(95.7%)가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냄.

□ 습지나 갯벌에 대한 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74.5%로 나타나 습지나 갯벌에 대한 보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야생동물 불법포획자와 보신용 섭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명단공개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의 대다수(90.1%)가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냄.

■ 전체적으로 ‘개발’보다는 환경자원에 대한 적극적 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의 공감대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을 목표로 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요망되고 있음.

12. 환경관련 자원 확충 방안

□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65.0%가 ‘현행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보다는 현재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수질향상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으로 수돗물 비용을 실제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4.9%, 반대의견은 45.1%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특히 수질향상을 위해 수돗물 비용을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중과세' (43.9%) 방안과 '환경오염 유발제품 부담금 부과 강화' (39.5%)를 지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들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염자의 책임부담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13. 환경주체의 환경개선 노력 평가: '정부'

□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2.2%로 나타난 반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57.8%로 조사됨.

□ 또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환경오염 관련 지표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긍정적 평가는 31.5%로 나타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68.5%로 조사됨.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96년 이후 정부의 환경오염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이 요망됨.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IMF 발생 이후 정부 정책이 IMF 극복과 구조조정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 그리고 환경오

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분석됨.

14. 환경주체의 환경개선 노력 평가: '기업'

□ 우리 나라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18.5%에 불과한 반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는 81.5%로 조사되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부정적 시각이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됨.

15. 환경주체의 환경개선 노력 평가: '민간 환경운동단체'

□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의 기여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67.2%)의 국민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나타냈고,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2.8%로 조사되어, 민간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

□ 일부 민간환경단체의 정치적 시민운동 참여에 대해 '환경운동이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한다' (40.6%)는 의견과 '순수한 환경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37.4%)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 민간 환경운동단체가 정부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임.

16. 국제사회의 환경무기화에 대응한 우선 과제

□ 국제사회의 환경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의 대다

수(94.0%)가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나타냄.

□ "기후변화협약 가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한 참여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93.1%)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對外 경쟁력을 우선 강화함으로써, 선진국의 환경무기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17. 선거의 지지후보 선택시 후보의 환경정책의지 고려 정도

□ "總選 혹은 地自制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출마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意志)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85.7%로 나타난 반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의견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후보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는 일반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8. 환경의식과 관련된 적합한 후보자 像

□ 總選 혹은 地自制 선거에서 환경의식과 관련하여 적합한 후보자 像으로 '환경을 중시하며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를 지정한 의견이 1순위(69.2%)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개발을 중시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후보' (19.7%),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후보' (9.7%), '개발을 최우선으로 고

려하는 후보' (1.4%)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환경이나 개발의 한쪽만을 주장하는 후보보다 '환경 마인드를 중심으로 개발을 고려하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19.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해, 과반수의 유권자(53.3%)가 '당선가능성이 이전 선거보다 높다'는 긍정 평가를 나타냄. 반면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은 4.8%에 불과하였음. 단, '이전 선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41.9%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유권자들은 후보의 환경의식을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중시 후보의 원내 진출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20.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선 과제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선 과제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 (5.1%)과 '환경오염 배출업체의 강력한 처벌' (5.1%)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철저한 분리수거 방안 마련' (4.9%),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 활성화' (3.9%), '매연차량 단속 강화' (3.9%)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안 마련과 대응방안에 대한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조사결과

PART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 우리 나라 일반국민들의 10명 중 8명 이상(88.8%)은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냄. 특히 과거 조사와 비교해 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95년 8월 조사(월드리서치)시에는 82.4%, 97년 9월 조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시에는 88.3%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2. 환경관련 주요 의견 공감도

□ 환경관련 주요 이슈를 통해 환경관련 의식 수준을 살펴 보면, '환경오염은 중대범죄'(93.4%), '환경문제는 경제 발전에 도움'(91.9%), '환경친화상품 구입의의'(91.8%), '환경문제 해결능력이 선진국·후진국의 구분기준'(91.7%), '민간단체 활동 활성화'(91.3%) 등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오염은 반사회적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공감대가 나타남.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공감의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환경관련 조세부담 필요성에 대한 對국민 홍보 다양화가 요망됨.

3. 21세기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 중복응답)

□ 21세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경제적 풍요'(45.2%)가 1순위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깨끗한 환경'(24.7%), '사회복지'(19.2%)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중복응답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제적 풍요

(60.3%)와 '깨끗한 환경(60.3%)' 둘다 삶의 질에 똑같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반면 환경전문가 집단들은 '깨끗한 환경'(38.4%)을 지적한 의견이 1순위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풍요'(26.8%), '사회복지'(25.6%)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중복응답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깨끗한 환경'(84.8%)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경제적 풍요'(36.6%)보다 '사회복지'(49.4%)가 중요한 요소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21세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풍요를 지적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복응답 결과를 볼 때 '경제적 풍요'와 '깨끗한 환경'을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4. 환경관련 정보의 정보원천 및 효율적 전달매체

□ 환경관련 정보를 접하는 정보원천의 1순위는 TV(81.7%)로 나타났으며, 향후 환경관련 정보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도 TV(1순위 92.5%, 종합 97.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TV와 신문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향후 인터넷과 PC 통신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터넷과 PC 통신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이 요망됨.

5. 환경관련 교육 이수 경험 및 참여 희망 교육

□ 최근 2년동안 환경관련 교육이나 강연을 이수한 경험은 매체를 통한 간접교육 경험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TV 매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

□ 향후 환경관련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경우, 참여하고 싶은 교육분야로는 '현장체험교육'(43.8%)과 'TV

- 매체 등을 통한 간접교육(41.2%)을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장체험교육의 경우, 전문강사·교육현장·부대지원시설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경험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1,500명 응답자 중 3.2%(48명)로 조사됨.
- 환경전문가 그룹 중 방문경험은 73.8%(121명)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듯 대다수가 학생층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의 방문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7.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만족도

-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 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22명(45.8%),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6명(54.2%)으로 각각 조사됨.
- 환경전문가 중 방문자 12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은 92명(76.0%),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9명(24.0%)으로 조사되어, 환경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부 홈페이지 방문해본 일반인과 환경전문가들 모두 '최신자료 부족', '이용가능한 자료 부족' 등을 지적하여 정보(contents)의 質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8. 향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제공 요망 정보

- 향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길 희망하는 정보유형으로는 '환경관련 뉴스'를 지적한 의견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터넷 환경에 맞는 신속한 환경관련 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제시됨.
-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 '환경정책 관련 자료'(40.2%), '환경기술·산업관련 정보'(28.0%), '환경 교육 자료'(12.8%) 순으로 나타남.
- 실시간(real time) 정보전달의 특성을 갖는 인터넷을 통해 신속한 환경관련 뉴스의 제공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비스 방안 마련이 요망됨.

다음호에 계속...